



鄭 在 恩      三星電子(株) 社長

## 市場多邊化와 戰略商品 開發에 拍車를

어느덧 甲子年 '84년도 저물어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로 접어들었다.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때가 오면 지난 순간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며 깊은 감회에 젖기도 하고 새로운 설계로 감동에 휩싸이기도 한다. 보람과 감격스러웠던 일,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韓國電子産業의 일익을 담당하는 이 사람에게 더 큰 포부와 엄격한 작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83년 하반기부터 好調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의 電子工業은 '84년에도 오일 가격의 안정세 유지와 美國 등 선진국 경기회복 영향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이 모처럼의 好況을 누려왔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노후시설 改替과 자동화 시설 및 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신규사업 또는 기존시설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하겠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를 비롯한 尖端技術 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의 도입, 개량에 노력이 집중되었음은 취약한 우리 생산기반 확충에 밝은 전도를 보여 준 것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덧붙여 특기할 사항은 '84년 劈頭를 시발점으로 각 기업에 확산되었던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이는 지금의 우리 전자공업이 있기까지 밑받침이 되어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였다. 각사가 총력을 기울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소비자와 폭넓은 대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야말로 電子工業과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甲子年이 거둔 또 다른 快舉라 하겠다.

국내시장의 유통단계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과당경쟁이 빚어낸 구조적 모순이 극심하였으나 家電3社協商의 결과로 바람직한 질서를 찾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에 이르러도 모든 업체는 현재의 시장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하면서 실판매 위주의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성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기의 여건과는 달리 하반기 이후 우리의 전자공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美國의 덤핑 판정이며 이로 인해 성장가도를 추구하던 관련업체는 일시나마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수입자유화의 물결이 점점 고조되면서 외제 선호사상을 떨쳐 버리지 못한 국민들의 의식은 비단 電子工業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韓國經濟의 가장 큰 과제인 국제수지 방어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하반기 들어서 주춤하기 시작한 국내경기와 더불어 선진국의 불투명한 經濟展望, 美國의 고금리 추세, 開途國의 심각한 外債問題 등의 불안한 환경은 우리의 방향을 예측 불허의 상태로 접어들게 하고 있고, 더우기 정부의 대기업 여신규제 등은 많은 투자를 요하는 尖端産業에 대한 각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84년초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컴퓨터산업이 예상외로 低調하여 오히려 각 메이커가 다시 家電部門으로 되돌아가는 느낌도 없지 않으며 이는 Software不在라는 기본적 요건 외에도 대부분의 기업이 그동안 尖端分野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불리한 여러 요인들이 올해 안으로 또는 내년 한 해 동안에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우리 업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극복하고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美國이나 日本 등 선진국이 최근 保護貿易主義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과 선발 개도국 및 후발 개도국 경제가 해외 의존 강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도 차제에 우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해야겠다. 기초산업과 중간재산업을 육성시켜 제품 다양화와 고급화를 통한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해외 현지 진출 또는 선진국과 합자투자, 기술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겠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공장 건설, 해외 합자 투자 등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市場多邊化를 통하여 특정 지역 편중에서 탈피함으로써 美國 日本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리 업체간의 과당경쟁은 참으로 삼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정부대로 体系的·綜合的 對策活動을 전개하여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政府·業界를 망라한 擧國的인 대응이 있어야 하겠다.

한편 수입자유화 배경에는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우리나라 수출대상국의 保護貿易障壁을 낮추기 위한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우리의 수출이 200억弗이 넘는 시점에서 輸入自由化를 비롯한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자유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國際競爭力을 갖고있

는 분야란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 아니면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나 제품에 국한되어 왔다. 반면 기술집약적 산업, 첨단산업 분야에선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수준이 조립가공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대외에는 과장되어 있을 뿐 실제 應用技術인 생산현장 기술이나 기초과학기술,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업체는 적극적인 技術導入 추진 및 자체 개발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技術革新體制와 효율적인 管理體制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술집약형 신기업 및 신기술 투자를 위한 稅制支授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겠다. 또한 각 기업은 나름대로 部品, 新素材 등의 국산화에 주력하면서 최대한의 수입역제로 財務構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수입자유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출선수범하여 '외계물건 안쓰기' 운동을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도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거의 그 어느 때와도 달리 技術革新, 技術情報體制, 高級技術人力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모든 업체가 일치단결하여 공동의 보조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美·日 등 선진국의 틈 속에서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여건에도 불구하고 작업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개인별, 단독적인 길을 걷는다면 그 업계는 물론 우리 모든 電子人이 또 한번 큰 시련에 부닥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84년을 돌아볼 때 늘 급박한 상황의식 속에서 영일이 없었던 것 같다. 급속한 변화의 연속인 電子工業의 특성때문에 또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당면문제로 인하여 동분서주하며 보낸 한 해였다. 그러나 당초계획과 별 차질없이 輸出에서나 內需에서나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電子工業에 몸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배려와 삼성전자 사원들의 땀의 댓가로 보며 깊이 머리를 숙인다.

밝아오는 乙丑年은 더 높은 포부와 강한 결의를 갖고 邁進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우리 전자공업의 성장여부는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원 모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있다고 보며 삼성전자는 '85년의 경영방침 제1조를 교육 원년으로 설정하여 최대한의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 電子人 모두의 건강과 힘찬 발전을 빌어마지 않는다.

